

의미의 역동성을 고려한 의미 교육 내용 연구

고춘화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국어교육과 의미 교육
- III. 의미 역동성에 터한 의미 유형의 교육적 접근
- IV. 의미 역동성을 고려한 의미 교육 내용
- V. 맺음말

I. 머리말

일상생활에서 의미는 다층적이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사전을 찾는다. 사전에 정의된 ‘어머니’의 의미는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사전에 명기된 ‘어머니’의 정의가 모국어 화자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바로 그 의미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즉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실제 모국어 화자로서 학습자가 연상하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의 장(場)에서 교수자는 당연히 여기고 넘여가는 내용들이 학습자에게는 호기심과 의문을 낳는 탐구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생활에서 생생하게 작용하는 의미의 다양한 작용과 유형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의미 교육은 단어의 의미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문법 교육의 일부 혹은 국어교육의 기초 활동이나 손쉬운 내용으로 취급되어 왔다. 국어교육에서 ‘의미’를 교육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6차 교육과정부터이다. 6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비로소 ‘의미’를 독립적인 언어의 단위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의미’는 그 이전부터 국어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인식되어 읽기와 쓰기에서 낱말의 의미를 찾고 생각하는 활동 등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그 교육 양

상이 국어교육의 전 영역에서 일회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교육내용으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교육내용으로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국어교육의 다른 내용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의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 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가 등의 이론적 바탕이 제대로 서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미는 언어의 모든 형식과 함께 작용한다. 의미를 형식에 담겨 있다고 하지 않고 굳이 작용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의 생동성과 역동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언어 형식은 소리, 단어, 문장, 텍스트로 확장되어 사용되며, 언어의 의미도 단어, 문장, 텍스트와 함께 작동한다. 단어의 의미가 의미의 중요한 층위이지만 그것만이 언어 의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미의 본질을 단어, 문장, 텍스트로 확장하여 함께 살핀다는 것은 일상 언어의 측면에서 맥락과 사용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교육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다. 어휘력 향상에만 제한되던 의미 교육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는 곧 국어교육 전체의 유의미한 가치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의 역동성에 더해 의미 유형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 교육의 내용 범주를 확대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의미 교육의 양상을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의미는 언어사용자와 맥락, 상황에 의해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의 역동성을 중요 개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의미의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Leech(1974/1981)의 의미 유형을 재해석하고 의미의 다양한 작용을 실제적으로 살핀 후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에 대한 관심은 언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사용자로서의 학습자에게도 함께 두는 관점을 따른다. 나아가 의미의 유형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미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의미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국어교육과 의미 교육

1. 의미에 대한 국어교육의 탐색

‘의미’의 정의나 가치에 대한 탐색은 학문의 기원에서부터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은 의미를 지시, 개념, 자극과 반응, 용법, 의의 등으로 정의하며 언어의 본질 이해를 통한 인간 이해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해 다룬 연구는 임지룡(2006), 신명선(2007)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의미 본질에 천착하여 의미 교육의 목적과 의미 교육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임지룡(2006)은 의미교육에 초점을 둔 본격적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의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으로 ‘의미’에 대한 기술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문법 영역의 언어 단위가 ‘음운-낱말-어휘-문장-의미-담화’로 설정되어 언어 범주화의 층위가 다름을 들고 있다. 그가 든 의미교육의 목적¹⁾은 의미의 본질에 천착하여 국어교육의 전체 목적에 알맞게 적용하여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의미교육의 이상적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신명선(2007)은 어휘 교육의 목표를 Ogden & Richards(1923)의 의미삼각형을 통해 언어와 세계와의 관련성에서 도출하고 있다. 비록 어휘 교육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의미의 본질에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이처럼 의미 교육의 목적이나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의미 교육의 목적과 관련

1 (1) 의미교육의 목적(임지룡, 2006: 109-110)

- ㄱ. 언어의 의미는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므로 의미의 이해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 ㄴ. 언어의 의미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일상 언어뿐만 아니라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과 같은 예술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 ㄷ.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 주체인 인간 및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므로 인간 및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 ㄹ. 언어의 의미는 언어정책, 사전편찬, 언어공학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하여 의미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미의 본질에 천착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의미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도 이론적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소통과 사용이 강조되면서 언어의 내용인 의미 교육은 모국어 화자의 소통과 사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언어의 내용인 의미가 어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텍스트에도 함께 존재하는 실제적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할 때 의미 교육 연구의 대상이 문장, 텍스트로 확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김운신(2014)은 의미 체계가 각 문법 단위별 의미와 함께 의미 추론의 원리(합성성과 담화 상황)에 의해 문장의 의미 구성에 관여함을 밝히고 관련 교육 내용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최경봉(2012)은 담화 중심의 통합적 문법 교육에서 문장의 의미와 담화의 의미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미 교육 연구에서 문장의 의미와 텍스트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교육내용이 어휘구조론의 내용에 제한되다 보니 교육내용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지의미론의 개념이나 원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등장한다. 인지의미론의 원리 소개 및 적용한 연구로 이동혁(2009), 신명선(2010), 임지룡 외(2014) 등이 있다. 신명선(2010)에서는 화자의 개념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인지 의미론의 기제를 활용하여 문장 교육 내용(문장 의미 교육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임지룡 외(2014)에서는 어휘의미, 다의어, 반의어를 구체적 대상으로 인지언어학접 접근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모국어 화자의 인지 과정에 대한 성찰과 의미 생성과 표현에 관련된 인지 의미론의 성과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다른 영역과의 통합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연구는 의미 교육 내용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의미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연구 또한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댄 바가 크다. 또한 국어교육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아직은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미론의 내용을 수용되는 데서 나아가 교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미 교육 내용의 기준을 세우고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에 드러난 의미 교육의 양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미 교육의 내용은 의미 교육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교육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의미 교육은 국어교육의 기초 활동으로 치부되어 교육과정에서도 6차 교육과정에서 와서야 비로소 문법에 ‘의미’ 및 ‘담화’가, 7차 교육과정에서 ‘어휘’가 새롭게 내용 단원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국어교육에서 의미 교육은 주로 단어의 의미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단어와 어휘, 어휘와 의미의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휘와 단어, 어휘와 의미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관규(2011), 최경봉(2012)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를 구분하면 동일한 낱말에 대해 형성 과정과 형성 원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은 ‘단어’, 형성된 결과로서 낱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은 ‘어휘’, 언어 표현 형식에 담긴 내용을 뜻하는 것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겠다. 특히 최경봉(2012)은 외현적 단위인 단어의 형성에 대한 교육과 단어가 언어 세계에 존재하는 양상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는 것이나 어휘의 체계 및 양상과 의미 관계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의미론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미는 언어의 표현 형식(단어, 문장, 텍스트)이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어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미 교육 내용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미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미 관련 교육 내용 요소

1차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 낱말의 문맥적 의미
2차	낱말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 낱말의 문맥적 의미
3차	문맥상 의미 알기
4차	비유로 쓰인 말의 뜻
5차	낱말의 뜻, 지시적·함축적 의미, 단어들의 의미 관계 분석
6차	단어의 뜻, 사전적 의미,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낱말, 낱말의 문맥적 의미, 낱말의 의미 관계와 짜임, 비유적으로 쓰인 낱말, 단어의 분류와 의미 관계, 단어의 함축적 의미
7차	낱말의 의미,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 어휘 사용의 적절성, 문맥적 의미, 비유적 표현의 의미
2007 개정	낱말 간의 의미 관계(유의 관계, 반의 관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2009 개정	단어의 의미, 낱말의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문맥적 의미, 동음이의어, 다의어,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 교육 내용은 주로 낱말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지식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의미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의미 작용의 분류 결과인 의미의 유형은 역동성을 가지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사전적 의미와 함께 제시되는 문맥적 의미는 다의어의 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뿐, 생생한 의미 작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내용 구성의 축은 2012 개정 교육과정²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음은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의미 관련 내용성취기준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거의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이 정식 명칭임.

표 2. 2012 개정 교육과정 의미 관련 내용성취기준

과목	학년군	영역	내용성취기준
공통 교육 과정 국어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1)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문법	(2)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선택교육과정 국어 I		문법	(12)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선택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국어 구조		(10)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13)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한다.

<표 2>에서 의미 교육의 내용으로 문맥적 의미, 의미 관계, 다양한 의미의 이해와 표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영역에서 ‘문맥을 고려한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초5~6, 읽(1))’는 앞뒤 문맥을 통해 모르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기, 비슷한 말로 바꾸어 보기 등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의미 교육이 다른 영역과 통합할 수 있는 내용 요소에 해당한다. ‘낱말의 다양한 해석과 효과적 표현(초5~6, 문(2))’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결정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비유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어적 맥락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작용하는 장면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 관계’는 공통교육과정 국어의 초1~2-문(3), 중1~3-문(8), 독서와 문법-(10) 등으로 내용성취기준으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의미 교육 내용으로 의미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미 관계는 주로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낱말의 의미간의 상호관계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사용 양상과 표

현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는 의미가 낱말 간의 관계(의의)에서 작용함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담화’ 관련 요소가 교육 내용으로 제시됨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의 실제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담화의 의미 해석에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이 관여한다는 관련 해설은 의미의 역동성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의미 교육에서 언어의 의미와 더불어 사용자로서의 화자와 청자, 맥락 등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Ⅲ. 의미 역동성에 터한 의미 유형의 교육적 접근

1. 의미 지식과 의미의 역동성

의미 교육에서는 구조주의 의미론의 입장에서 의미는 고정되어 있고 핵심 개념이 존재한다는 관점에 의거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왔다. 지식의 절대성이 존중되어야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지식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대하는 의미는 역동적인 경우가 많다. 이동혁(2012)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는 백과사전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서 ‘의소’가 있으며 이에 언어적 의미도 포함된다. 그는 단어의 의미가 언어적 지식에 한정한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백과사전적 지식과 명확히 구분되는 언어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 구성에는 백과사전적 지식이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언어 사용의 언어 환경과 관련된 문맥적 요소 등이 언어적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화자의 의미 지식은 언어적 지식과 세계사적 지식이 결합하여 구성된다. 세계사적 지식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지식과 공동체의 관습에 따른 문화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³ 새로운 사물이 등장하

거나 기존 사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 문화사 지식도 변화하면서 해당 단어의 의미 지식도 변화하게 된다. 이를 Lobner(2002)에서는 의미의 삼각형에서 개념의 의미 변화로 관련시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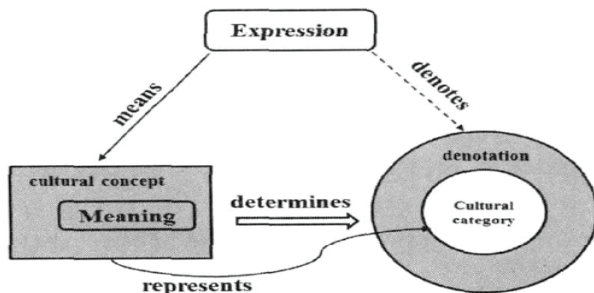


그림 1. The Semiotic Triangle Integrating Cultural knowledge(Lobner, 2002)

Lobner(2002)에 의하면 개념의 외연을 범주화함에 있어서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에서 단어의 의미 변화’이다. 집단에 따라 공유하는 경험이 각기 다르게 되면, 사물의 분류 방식이나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적인 지식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거나 변동되는 인간의 인지가 새로운 방식의 범주화 과정을 야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념 간의 범주화 방식 및 의미적인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의미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역동적 의미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의 변화에 의해 개념의 의미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⁴

3 ‘밥’을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밥을 좋아하는지, 주로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것인지 등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선호도에 따른 개인적 지식이다. 반면 ‘밥’은 쌀로 짓는다는 것, 한국 사람의 주식이라는 것 등은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식으로 문화적 지식에 해당한다.

4 최영석·박진수(2013: 116) 재인용함. 앞의 화자의 의미 지식 및 Lobner(2002)의 관

의미의 역동성에 대한 인식은 의미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도 상통한다. 최명원(2002)에서는 ‘서류철 바꾸기 의미론(File Change Semantics)⁵⁾’을 인용하여 잠재되어 있는 전체로부터 한 발화상황에 해당하는 특정한 의미가 추출되는 것이며, 잠재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의미맥락은 그야말로 역동적이어서 의미의 잠재성이 발견될 수 있는 한 무한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의미의 연쇄적 확장과 연상을 통한 교체 등 의미의 유동성과 역동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의미의 역동성이란, 의미는 모든 언어 층위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며 언어사용자와 맥락, 상황이 다양하게 관여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의미의 유형과 교육적 가치

국어교육에서 ‘의미’는 주로 개념적 의미까지만 주된 교육대상으로 삼아 왔다. 개념적 의미에 대한 교육 방법도 사전을 활용하여 그 뜻을 확인하거나 의미 관계를 이론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사용자와 맥락(언어, 사회, 문화를 포함한)을 고려한 의미의 작용은 언어, 국어의 기능과 창조성을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의미의 유형을 교육적 지식으로 변환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의미의 역동성을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 화자는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잠재적 의미와 그 가능성을 실제 언어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 사용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의미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이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한

런 논의도 이를 참조한 것임을 밝힘.

- 5 이는 하임(Heim, 1982)에서 제기된 것으로 사람들이 담화를 처리할 때의 과정을 정보가 저장된 서류철을 작성하는 데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맥락의 변화라는 개념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종래 의미론에서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논할 수 있었던 것을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여 담화라는 더 큰 단위를 형성해 나갈 때 성립하는 의미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진리조건 대신 서류철로 비유되는 정보 상태의 변화로써 의미의 역동성을 파악한다(최명원 2002: 484-485).

의미와 청자가 해석하는 의미는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도한 의미와 해석되는 의미⁶의 간격은 의미가 가진 잠재성 혹은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김봉주(1988: 247)에 따르면, 통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 같이 생각되나, 사실은 공시적으로 보아서 그 모든 사용 의미는 이미 존재 즉 잠재하여 있어서, 화자가 그때그때 꺼내어 쓰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도한 의미와 전달되는 의미의 차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의미의 다양한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역동성에 바탕을 두고 의미의 유형에 대한 Leech(1974/1981)⁷의 논의를 의미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의미의 유형(Leech, 1974/1981: 26)

개념적 의미 (conceptual meaning)		논리적, 인지적, 혹은 외연적 내용/사전적 의미
연상적 의미 (associative meaning)	내포적 의미 (connotative meaning)	언어가 지시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어 소통되는 의미 / 함축적 의미
	사회적 의미 (social meaning)	언어사용의 사회적 상황에 관해 소통되는 의미

6 The important point is that meaning, for linguistics, is neutral between ‘speaker’s meaning’ and ‘hearer’s meaning’; and this is surely justifiable, since only through knowing the natural potentialities of the medium of communication itself can we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what a person intends to convey and what he actually conveys(Leech, 1974: 24).

7 Leech(1974/1981)의 의미의 유형은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제시되어서 이는 학교 문법에서 의미 유형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의미의 유형을 다양한 양상으로 밝혀낸 것으로 평가되어 있어 중요한 논의의 하나이다. Leech(1974/1981)의 의미 유형은 홍사만(1984)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어 임지룡(1992), 노명현(2012)에서 다시 해설되었는데, 해당 표와 관련 내용은 이들을 참조한 것이다.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의미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문법 교과서에서는 언어적 의미는 빼고 제시된다. 번역 용어는 임지룡(1992)을 따랐으며 표의 / 뒤의 용어는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이다. Leech(1974)의 ‘stylistic meaning’(문체적 의미)이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Leech(1981)에서 ‘social meaning’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의미 (affective meaning)	화자/필자의 감정이나 태도에 관해 소통되는 의미, 환정적 의미
	반영적 의미 (reflective meaning)	동일한 표현의 다른 의의와 연상을 통해 소통되는 의미 / 반사적 의미
	언어적 의미 (collocative meaning)	함께 사용되는 다른 단어와 연합을 통해 소통되는 의미
주제적 의미 (thematic meaning)		메시지가 순서와 강조에 의해 구성되는 방식에 의해 소통되는 의미

언어는 화자, 청자, 맥락(환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형성한다. 언어 자체 의미의 본원성, 부가성을 고려할 때, 개념적 의미는 언어 자체의 본원적 의미를 한정하고 내포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의미의 다양성을 전제한다. 개념적 의미는 낱말 자체의 핵심적 의미로서 인지적, 외연적 내용에 해당하며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기존 의미 교육의 주된 교육 내용으로서 해당 언어의 본질적이고 중핵적 의미로 여겨지고, 성분 분석을 통해 의미의 본원적 요소를 규정하고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내포적 의미는 언어 표현이 언급하는 것, 즉 지시에 의해 생성되는 전달적 가치를 뜻한다. 대상에 대해 언급할 때 개념적 내용에 덧붙여서 연상되는 대상의 물리적 특성, 심리적 사회적 속성, 전형적 특징, 추정되는 속성 등을 가리킨다. 특히 추정적 특징은 개인적, 집단적, 전체 사회적 관점이 적용되어 도출되어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의미적 가치와 연관될 수 있다.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모성이 있고 희생적이라는 의미 속성을 가지지만,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확대하는 의미 속성을 가지기도 하며, 학생들에게 어머니는 잔소리의 의미 속성을 지닌다.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 평가가 의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단어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그 단어에 대해 언급이 느끼는 긍정적 평

거나 부정적 평가와 같은 가치 의미도 지닌다⁸고 할 수 있다. 의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가 실제 작용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의미 능력을 갖추게 한다.

화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의미로는, 언어사용자의 사회적 환경을 알게 하는 사회적 의미와 화자의 개인적 감정을 추정하게 하는 정서적 의미를 들 수 있다. 조카가 외삼촌에게 부탁하기 위해 ‘아지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조카가 경상 방언 화자라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정서적 의미를 함께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어떤 의도를 특별히 드러내고자 할 때 특정 의도를 주제적 의미라고 하고, 청자가 언어의 개념적 의미 중 특정 요소를 다른 의미와 연합하여 생성하는 의미를 반영적 의미라고 한다. ‘흐른다, 말없는 침묵이’에서 화자가 어순을 바꿈으로써 전달되는 효과는 주제적 의미이고, ‘말없는 침묵’을 성당과 관련시켜 평온함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혼란장과 관련시켜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Leech(1974)는 ‘내포적, 사회적, 정서적, 반사적, 언어적 의미’를 묶어서 ‘연상적 의미’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의미의 범주적 특징과 설명의 초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연상적 의미는 개인이 다양한 맥락과 환경에 따라 개념을 표현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미 양상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의미 교육은 점차 그 교육 내용으로 개념적 의미에서 연상적 의미를 포함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개념적 의미가 사용자(화자)와 사용 맥락을 제거한 낱말 본연의 의미라면, 연상적 의미는 사용자와 사용 맥락의 결합 반응에 의해 ‘연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재형성된 것이므로, 둘의 구분은 매우 의미가 있다.⁹

언어의 의미는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사람1은 사람2이어야 사람3이다(김봉주, 1988: 90).’에서 사람의 개념적 의미는 사전에 기술된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인데 여기에서 개념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8 민현식(2000: 142)에서 재인용함.

9 김효정·박재현·김은성(2008: 96) 수정 인용함.

사람1뿐이다. 사람2는 ‘사람다운 사람’의 내포적 의미로 사용되고, 사람3은 메시지를 강조하는 주제적 의미가 함께 사용된다.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동일 표현에 대해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 주제적 의미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언어의 의미는 일대일의 단선적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연적 속성, 내포적 속성, 화자의 의도, 맥락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하게 생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내적지식 중심으로 의미교육의 내용을 살피되, 언어외적지식으로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국어교육이 모국어 화자의 언어능력 신장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언어가 본질적으로 가진 인간의 사고, 문화, 역사 등과의 영향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를 안다는 것에 작용하는 언어적 요인을 중심 내용으로 삼되, 관련된 인간의 사고, 문화 등 촉발 요인도 함께 교육 내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IV. 의미 역동성을 고려한 의미 교육 내용

앞장에서 언어의 의미는 언어 자체만으로 결정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어 맥락과 상황에 의해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가능성과 역동성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Leech(1974) 등은 의미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의미 생성에 작용하는 요소를 언어, 사용자, 맥락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의미 교육에서는 주로 언어에 한정해서 의미를 살폈음을 알 수 있다. 의미의 역동성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언어뿐 아니라 사용자와 맥락에 대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변환하여 의미 교육 내용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앞장에서 살핀 의미의 본질과 의미의 유형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미 교육의 내용으로 의미의 역동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 의미의 유형에 대한 심층적 접근 방식의 개발, 화자의 의미 해석과 관점에 대한 관찰, 새말 의미 인식과 생성에

대한 의식 등을 수용하고자 한다. 구체적 접근 방안으로는 맥락을 통한 의미의 본질,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가치, 의미의 유형과 심층적 이해, 화자의 의미 해석과 표현, 새말의 의미 인식과 구성 등을 고려하여 의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맥락을 고려한 의미의 본질

언어는 공기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 맥락은 의미 해석의 단서로 작용한다. 맥락은 언어 내적 맥락(언어적 맥락)과 언어 외적 맥락(상황과 세상사 지식)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언어적 맥락¹⁰은 어휘와 통사규칙(선택제한, 하위범주화), 언어, 공통맥문, 응집 등이며, 언어 외적 맥락은 상황과 세상사 지식(개인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 등이다. 동일한 형태의 낱말일지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통해 의미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알 수 있으며, 세계사적 지식의 변화에 의해 개념적 의미가 바뀌는 의미의 역동성을 학습할 수 있다.

(1) 맥락에 따른 의미의 가능성

가. 언어적 맥락과 동음이의어 해석

ㄱ. 머리칼이 하얗게 ().

ㄴ. 그는 문을 () 닫았다.

ㄷ. 열을 () 때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나. 언어적 맥락과 다의어 해석¹¹

ㄱ.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나서 그는 이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10 권영문(1998)을 참조함. 언어는 공기하는 단어나 맥락에 따라서 무한한 의미를 갖는다. 맥락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동일한 형태의 언어 항목이라 할지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새로운 다른 언어 항목이 되는 것이다. ‘white people’, ‘white wine’, ‘white coffee’에서 ‘white’의 의미가 ‘핑크색, 노란색, 갈색’ 등으로 달라지는 것은 공기하는 단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는 구나 문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선행 문장이나 후행 문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미 변이가 일어난다. 즉, 동일한 문장이나 발화가 앞이나 뒤에 오는 문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영문, 1998: 333-335).

11 언어 자료와 설명은 김혜령(2015: 152-153)에서 참조 인용함.

- ㄴ.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철수 친구 영호입니다.
- ㄷ. 갈릴레이는 자연 과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 ㄹ.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의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세다’이다. 하지만 (가ㄱ)은 머리칼의 의미 속성에 의해 ‘희어지다, 변하다’의 의미로, (가ㄴ)은 닫는다는 작용에 의해 ‘기세가 강하다’의 의미로, (가ㄷ)은 열의 의미 속성에 의해 ‘수를 헤아리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언어적 맥락에 의해 동일 형태라도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나ㄱ)에서 ‘아버지’는 실제 자식에 대한 부모 관계로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나ㄴ)에서는 친구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된다. (나ㄷ)에서 ‘아버지’는 비유적인 의미로서, 한 분야의 개척자나 완성자를 나타낸다. 이때 ‘아버지’는 ‘음악의 아버지’, ‘물리학의 아버지’ 등 특정한 분야를 나타내는 표현이 선행한다. (나ㄹ)의 ‘아버지’는 종교에서 사용되는 예이니만큼 주로 기도문이나 설교 등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맥락 바꾸기를 통한 의미 변이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아버지, 저희가 앞에 왔습니다.’가 교회 예배 장면인지, 아버지 무덤 앞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2) 문화적 지식과 의미의 역동성

- ㄱ. 군대에 가다.
- ㄴ. 아버지는 늘 다니는 가게에서 쌀을 팔아 오셨다.
- ㄷ. 휴대폰

(2ㄱ)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 해석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가다’의 경우 한국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가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때 ‘가다’는 ‘복무하거나 종사하기 위해 다니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영어로 번역할 경우에도 ‘go army’가 아니라 ‘joining the army’, ‘enter

12 최호철(1996)의 논의를 김혜령(2015)에서 재인용함.

the military'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2ㄴ)‘쌀을 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사다’라는 동사로 사용하면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의 의미로 쌀은 판다고도 하는 것이다. 이는 쌀을 주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필요한 예이다. (2ㄷ)‘휴대폰’은 그 의미가 ‘전화’의 기능에만 한정되던 것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로 ‘전화, 사진기, mp3’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의미 범주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역동성과 의미 지식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인적 의미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2.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의 가치

언어 사용자는 대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며 살아간다. 대상에 대한 평가와 가치 부여는 언어의 의미에도 영향을 끼친다. 낱말에서 덧붙여 연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가치 부여는 국어교육에서 말의 힘, 긍정적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의 교육적 타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화자나 필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의 가치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3) ‘짐승’의 의미 가치

- ㄱ. 동물원에는 온갖 새와 짐승이 모여 있었다.
- ㄴ.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팔아넘기다니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디 있나.
- ㄷ.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웃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성탄제, 김중길 중)

ㄱ에서 ‘짐승’은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정온 동물’의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며 가치중립적으로 사용

되었다. 반면 ㄴ에서 ‘짐승’은 ‘매우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인간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ㄷ에서는 선행하는 ‘어린’의 영향을 받아 ‘짐승’은 ‘나약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암시하는 시어로 사용된다. 이처럼 해당 낱말의 의미가 긍정적 가치를 내포하느냐 부정적 가치를 내포하느냐 혹은 중립적으로 사용되느냐를 인식하는 것은 담화와 텍스트에서 화자나 필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여 해석하기와 연관될 수 있다.

3. 의미의 유형과 의미의 심층적 이해

의미에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청자가 해석하는 의미가 중립적으로 잠재해 있으므로 그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장면에서 중요하다.

(4) 의도한 의미와 해석되는 의미

영수: 어디 가는데?

진희: 말이 짧네.

영수1: 알았어. 길게 말해줄게. 지금 너 혼자 어디에 가고 있냐고 묻고 있지.

영수2: 아! 어디 가십니까? 부장님.

(4)‘말이 짧네.’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말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다’로 이해하면 영수1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영수와 진희가 친구 사이라도 ‘회사’라는 공간을 고려해서 공적인 관계에서 격식적으로 말해 달라는 의도로 해석하면 영수2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의미의 유형은 일정한 틀로 정형화시켜 암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낱말이 텍스트/담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화자/필자의 감정이나 정서적 태도는 어떠한가, 화자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 의미를 유형화하기 위해 필요했

던 기준들을 축으로 해당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 의미의 유형과 심층적 이해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이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편안함’ 그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¹³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로 시작하는 문두는 특정 사람을 ‘당신’으로 지칭하면서 동시에 독자를 당신의 자리에 대입시켜 필자와 마주앉아서 대화하는 생생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앞으로 말하는 필자의 메시지가 독자에게 보다 설득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주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일반적 의미와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의 현명함은 지혜롭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영합하여 자신을 바꾸는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반면 어리석음은 자신의 주관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소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에 필자의 관점이 투사되어 일상적 용법과 반대로 의미가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우직하게 느리지만 천천히 사람됨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를 뒤바꾸어 재해석하는 필자의 언어 사용은 ‘편안함’과 ‘불편함’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는 육체와 물질, 마음과 정신이라는 의미 범주를 각각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흐르는

13 해당 자료는 신영복(1996: 82),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중 일부임.

강물처럼 육체적, 물질적 편안함을 경계하고 정신적 편안함을 지향하는 삶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묻어 나온 의미의 재해석은 대상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화자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러한 필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의미의 변주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의 심층적 이해와 풍부한 사용이 제대로 교육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화자'의 의미 해석과 표현

동일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간은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따라서 의미에도 화자의 입장과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동일한 컵 속의 물을 대할 때에도 어떤 이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 '지킬박사'와 '하이드', '혁명가와 독재자', '로맨스와 스캔들'이라고 하는 데서 보듯이 일상 언어에는 화자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화자는 장면에 대한 관점과 입장, 즉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의미를 해석한다.¹⁴ 다음은 동일 장면에 대해서도 다르게 의미 해석하여 '위기/기회'를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6) 화자의 해석과 표현의 선택

영화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영화인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배급사라는 대상이 있었고, 제작사들 간의 공동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뮤지컬 제작사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경쟁하여 서로가 불신의 불신을 거듭해온 사이이다. 공동의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갑자기 마음을 갖추고 뜻을 같이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뮤지컬계가 먼저 해나가야 할 것은 제작자들 간의 신뢰 회복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다음 단계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위기가 제작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위기는 우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다.¹⁵

14 임지룡(2008: 432) 수정 인용함.

15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526&contents_id=71141,

2000년대 이후 뮤지컬 공연 시장 상황에 대해 필자는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는 공감하되, 오히려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회’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장면 해석에서 취하는 입장이나 관점, 긍정과 부정의 인식과 표현의 선택은 인간의 주체적 사고와 인지 경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5. 새말의 의미 인식과 구성

새말은 대상 세계에서 새로운 사물이 창조되어 명명할 경우나, 외부 문물이나 다른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새말의 의미 구성은 기존 개념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새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의미가 구성되는데, 이 경우 외래어의 활용과 의미 인식, 고유어와 외래어 의미 인식의 차이 등을 엿볼 수 있다.

(7) 새말 의미 인식과 외래어의 의미 활용¹⁶

- ㄱ. 미팅, 소개팅, 방팅, 사이버팅, 채팅, 즐팅
호텔, 모텔, 오피스텔, 고시텔, 원룸텔
- ㄴ. 다방 : 카페 닭 : 치킨 포도주 : 와인
- ㄷ. 쿨하고 시크하고 옛지 있다.

ㄱ에서 ‘-팅(-ting)’, ‘-텔(-tel)’은 일종의 사이버 접사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의미 조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각각 ‘만남’과 ‘공간’을 지칭하는 의미 조각으로 작용한다. 동일 의미 계열의 새말을 외래어 조각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 셈이다. ㄴ에서는 개념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지만 외래어가 우리말에 비해 의미 범주가 확장되거나 긍정적 가치로 사용되고 있다. ㄷ은 사람에 대해 평가

박병성(2014),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일부임.

16 여기에 제시된 예와 정의는 조지은(2014)을 참조함.

할 때 ‘멋지고 센스 있고 세련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를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말 조각으로 활용하고 있다. ‘쿨하다’의 경우 ‘꾸물거리지 않음’, ‘답답하지 않음’, ‘시원시원함’을 의미에 내포하고 있는 반면 ‘멋지다’는 ‘매우 멋이 있다. 씩 훌륭하다’ 등 높이 평가됨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 맥락이 차이가 있다. 상대의 언행이 멋진데 그 멋진 상황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함을 적절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쿨하다’를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유어에 비해 외래어를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언중의 고유어와 외래어 의미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맥락 차이에 따른 의미 구성 전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새말과 외래어의 의미 구성 전략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V. 맺음말

국어교육에서 ‘의미’는 화자와 청자, 언어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언어 요소이다. 의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이고 다양한 작용 때문에 고전적 문법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국어교육에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으로 인식되다 보니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의미는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의미를 규정하고 고정하려 한 전통적 구조적 의미론에서 의미의 생동성을 탐구하고 의미를 인간의 인지 및 사고 및 문화와 연관시키려 하는 역동적 의미론으로의 변화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 본질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의미의 역동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 의미의 유형에 대한 심층적 접근 방식의 개발, 화자의 의미 해석과 관점에 대한 관찰, 새말 의미 인식과 생성에 대한 관심 등을 의미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의미 교육의 자료

로 단어에 제한하지 않고, 문장과 담화/텍스트에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이는 의미가 실제 작용하는 힘의 양상이기도 한 동시에, 문법 교육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어교육에서 말의 힘, 긍정적인 말의 사용, 고운 말의 사용, 국어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과 자아성찰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교육의 중요한 가치들을 뒷받침할 국어교육적, 문법 교육적 이론을 살피는 것에는 부족했다고 본다. 이 연구가 국어교육의 가치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의 이론적 토대로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드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범모(2014), 「텍스트 맥락과 단어 의미: 잠재의미분석」, 『언어학』 68, 한국 언어학회, 3-34.
-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
- 권영문(1998), 「맥락과 의미해석」, 『신영어영문학』 10, 신영어영문학회, 325-345.
- 김광해(1995),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봉주(1988), 『개념학 —의미론의 기초—』, 한신문화사.
- 김윤신(2014),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의미 교육의 한계와 전망」,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357-386.
- 김혜령(2015), 「국어 어휘 의미의 실현 조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8), 「문법 교과서 ‘의미 단위’의 교육 내용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9-108.
- 노명현(2012), 『의미론 개관』,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 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재현(2006), 「어휘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의미의 가치교육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5-24.
- 신명선(2007), 「단어에 대한 얌의 의미에 기반한 어휘교육의 방향 설정 연구」, 『국어교육』 105, 한국어교육학회, 349-386.
-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77-107.
- 신영복(1996), 『나무야 나무야』, 돌베개.
-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관규(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27-158.
- 이동혁(2009), 「의미교육 개선을 위한 인지언어학의 함의」, 『우리말글』 46, 우리말글학회, 43-66.

- 이동혁(2012),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165-193.
- 이문규(2003), 「국어교육의 이념과 어휘 교육의 방향」,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383-402.
-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어휘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89-208.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탐출판사.
- 임지룡(2006), 「의미교육의 학습 내용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87-116.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 외(2014), 『문법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조지은(2014), 『한국어 속에 숨어있는 영어 단어 이야기』, 박이정.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의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봉(2012), 「의미 교육과 국어교과서 —2011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121-152.
- 최명원(2002), 「언어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맥락의 의미」, 『독일어문학』 19, 독일어문학회, 497-515.
- 최영석·박진수(2013), 「의미간의 유사도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지능정보연구』 19(1),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11-123.
- 홍사만(1984), 「Leech의 의미론 —의미의 7유형에 대하여」, 『어문론총』 18, 한국문학언어학회, 47-67.
- Chierchia, G. (1995). *Dynamics of Meaning: Anaphora, Presupposition and the Theory of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sold, R. W. (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 Leech (1974/1981). *Semantics*. Penguin Books.
- Lobner, S. (2002). *Understanding Semantics*. London: Arnold.
- Ogden & Richards (1923).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의미의 역동성을 고려한 의미 교육 내용 연구

고춘화

국어교육에서는 구조주의 의미론의 입장에서 의미는 고정되어 있고 핵심 개념이 존재한다는 관점에 의거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대하는 의미는 역동적이다. 언어의 의미는 언어 자체만으로 결정되거나 고정되지 않고 맥락과 상황에 의해 다양하게 작용한다. 사용자와 맥락(언어, 사회, 문화를 포함한)을 고려한 의미의 작용은 언어, 국어의 기능과 창조성을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의 역동성과 다양한 의미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미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그 범주를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맥락을 통한 의미의 본질,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의 가치, 의미의 유형과 심층적 이해, 화자의 의미 해석과 표현, 새말의 의미 인식과 구성 등을 구성하여 교육내용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의미 교육, 역동성, 의미의 유형, 의미교육내용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Contents by Dynamics of Meaning

Ko Chunhwa

This study aims to propose semantic educational contents considering the dynamics of meaning.

The Korean semantic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ctural semantics that meaning is fixed and a core concept exists in it due to the viewpoint that teachers should teach stable contents based on the traditional knowledge at school. However, meaning tends to be dynamic in a daily life. The meanings of the language are not determined or fixed only by the language itself and represents variously depending on contexts and situations. The use of meaning considering the user and the context including language, society, culture encompasses the educational value in that this can make the ability and creativity of language educated in the school.

The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meaning, and analyzed various meanings applied to a real life with Leech's types of meaning (1974).

As a result, I suggested the semantic educational contents composed of those; the essence of the meaning through context, the value of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the objects, the types and in-depth understandings of the meanings, the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of the speaker's meaning, new words' meaning recognition and configuration.

KEYWORDS Korean Education, Semantic Education, Context, Types of meaning, Semantic educational contents, Dynamics